

‘大’와 ‘小’의 자형 분석과 그 확장의미 고찰

김 미 성*

〈目次〉

I. 서론	2. 갑골문 ‘小’의 자형과 의미
II. 갑골문의 ‘大’와 ‘小’	분석
1. 갑골문 ‘大’의 자형과 의미	III. ‘大’와 ‘小’의 확장의미 분석
분석	IV. 결론

I. 서론

‘大’와 ‘小’는 대부분 언어에서 존재하는 기본 어휘이며 현재 공간 형용사 혹은 공간 척도 형용사로 분류하고 있다.¹⁾ 《現代漢語詞典(제7판)》에서 ‘大’와 결합하여 형성된 어휘 수는 426개이며 ‘小’와 결합한 어휘 수는 173개이다. 다른 공간이나 척도를 나타내는 형용사의 어휘 수보다 많다.²⁾ 이는 조어 능력이 뛰어난 것을 증명하고 어휘 수가 많기에 당연히 사용빈도도 높다.

* 조선대학교 중국어문화학과 초빙객원교수

- 1) 공간이나 척도를 나타내는 형용사에 대하여 학자마다 용어 선택에 있어 차이를 나타낸다. 한국의 경우 공간 감각어, 공간 형용사, 공간 표시 형용사, 척도어, 차원 형용사, 감각 형용사 등으로 명명되고 있다. 중국의 경우도 확실한 용어로 통일되지 않았다. 陸儉明(1989)은 ‘度量形容詞’라는 용어로 사용하였으며 현재 일반적으로 ‘度量形容詞’나 ‘空間維度形容詞’로 사용한다.
- 2) 《現代漢語詞典(제7판)》에 공간과 척도를 나타내는 형용사와 결합한 어휘 수를 살펴보면 高:173, 低:57, 深:54, 淺:18, 重:56, 輕:67, 遠:37, 近:38, 多:63, 少:13, 厚:22, 薄:2, 長:93, 短:44개다.

공간 형용사로 분류하는 ‘大’와 ‘小’는 갑골문 복사부터 사용되었다. 하지만 ‘大’와 ‘小’의 갑골문 자형은 공간적 의미를 나타내지 않았다. 우선 ‘大’자의 갑골문은 𠂇이다.³⁾ 상형자로서 사람의 정면을 형상화한 것이다. 이어서 ‘小’의 갑골문을 살펴보면 小이다. 상형자로서 작은 점 세 개를 형상화했거나 자그마한 먼지 혹은 씨앗, 모래 모양을 형상화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갑골문은 문자의 조형이나 구조로 볼 때 성숙한 형태의 문자라고 할 수 있다.⁴⁾ ‘大’와 ‘小’는 갑골문 시기에 이미 여러 가지 의미와 용법으로 사용되었다. 우리가 현재 ‘大’와 ‘小’의 기본의미로 규정하는 공간적 의미는 갑골문 자형 의미에서 보이지 않았고 갑골문 시기에 사용된 여러 의미 중 하나에 불과했다.

현재 천편일률적으로 ‘大’와 ‘小’를 공간 형용사 혹은 공간 척도 형용사로 분류하고, 공간의미를 나타내던 단어가 확장되어 시간이나 추상적 의미를 나타낸다고 여기는데⁵⁾ 이러한 분석이 과연 타당한지 의구심에서 이 논문의 연구가 시작되었다.

본 논문은 우선 갑골문에서 사용된 ‘大’와 ‘小’의 자형 분석과 의미를 살펴보고자 한다. 갑골문은 이미 완전한 문자체계를 갖춘 성숙한 문자 단계에 속하기 때문에 인지 언어학에서 말해지는 것처럼 공간의미에서 시간, 추상적 개념으로 변화 발전했는지에 대한 검증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현재 사용되고 있는 ‘大’와 ‘小’의 쓰임을 살펴봄으로써 갑골문 시기를

3) 본 논문의 갑골문은 www.zdic.net의 字源演變의 이미지에서 가져온 것이다.

4) 탕누어(唐諾), 《한자의 탄생》, 김영사, 2015, 18~19쪽.

5) 陸儉明(1989)은 13쌍의 척도 형용사의 통사와 의미적인 특징을 규명하였고 공간의미에 주목하였다. 任永軍(2000)은 인지 언어학적 방법론으로 ‘大/小’, ‘長/短’, ‘寬/窄’, ‘高/低’, ‘厚/薄’, ‘深/淺’, ‘粗/細’ 등을 연구하였으며 공간의미와 은유적 확장의미를 다루었다. 그 밖에 大/小에 관한 연구는 이민우(2000), 李軍·任永軍(2002), 聞政華(2008), 張佳穎(2014) 등이 있다. 대부분의 연구가 인지 언어학적 방법을 이용하여 기본의미인 공간적 의미가 여러 가지 기제를 통해 의미의 확장을 이루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나 ‘大’와 ‘小’의 의미가 어떻게 확장됐는지 고찰하려고 한다.

II. 갑골문의 ‘大’와 ‘小’

1. 갑골문 ‘大’의 자형과 의미 분석

우선 ‘大’의 갑골문을 살펴보면 𠂇 이다. ‘大’는 손발을 활짝 벌린 사람의 정면을 형상화한 것이다. 사람 모양을 형상화한 대표적 한자는 ‘人’이 있다. ‘人’의 갑골문을 살펴보면 𠂆 이다. 꾸부정하게 서 있는 사람의 측면 모양을 나타낸다. ‘人’은 갑골문 시기에 일반적인 백성을 나타냈으며 ‘大’는 성인이나 임금의 구별자로 많이 사용되었다.⁶⁾

《설문해자》의 ‘大’를 살펴보면 ‘大’는 “하늘도 크고(위대하고), 땅도 크며(위대하고), 사람도 크다(위대하다). ‘大’는 사람의 형상을 본 뜬 것이다. (天大, 地大, 人亦大, 故大象人形.)”라고 했다. 갑골문이나 《설문해자》의 ‘大’자는 현재 우리가 ‘大’의 기본 의미로 설정하고 있는 공간적 의미를 나타내지 않았다.

갑골문 시대에도 시기별로 한자의 사용양상이 다르며 의미의 확대를 가져왔다. 이는 한자의 변화 발전을 설명한다고 할 수 있다. 인간 사유의 확장과 더불어 구체적이고 정확한 의사소통을 위해 더 많은 어휘가 필요하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본연의 자형 의미에서 확대되어 사용되었다고 할 수 있다.

우선 갑골문 ‘大’자의 의미변화를 살펴보기로 하자. 본 논문은 크게 두 단계로 나누어 살펴보려고 한다.⁷⁾

- 6) 사람의 모습을 형상화한 갑골문은 文, 亦, 夫, 大, 母, 女, 子, 天, 立, 走, 元, 屍, 交, 身, 鬼, 孕, 欠, 聞, 見, 兒 등이 있다. 사람의 정면모습을 형상화한 것은 文, 亦, 夫, 天, 立 등이다.
- 7) 甲骨文은 시기를 구분하여 연구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같은 시기라도 여러 개의 真人組가 존재하며, 또 真人組를 분류하여 연구하는 것이 보다 구체적인

첫 번째는 ‘大’자가 갑골문의 이른 시기부터 사용된 師肥筆, 師小字, 師賓間에 사용된 예문을 살펴보기로 하자.

- 1) 丙子卜: 奉(禱)出大丁.(丙子일에 점칩니다: 大丁에게 奉제사와 丕제사를 지낼까요? 「合集19946」
- 2) ...大風自北... (...큰 바람이 북쪽에서 ...) 「合集21010」
- 3) 壬戌出雨, 今日小采允大雨, 征(延), 日佳(唯)啟. (壬戌일에 비가 올까요? 오늘 小采일에 과연 큰비가 내렸다. 계속 내리다가, 낮에 개였다.) 「合集 20397」
- 4) 甲申卜, 王: 大衛于多母.(甲申일에 점치고 왕이 묻습니다: 多母에게 큰 衛 제사를 지낼까요?) 「合集19971」
- 5) 丙戌卜: 三日雨, 丁亥佳大食雨. (丙戌일에 점칩니다: 3일 안에 비가 올까요? 丁亥일 大食일에 비가 왔다.) 「合集20961」
- 6) 甲午貞: 大方允出. 十二月. (甲午일에 묻습니다: 大方이 과연 출동할까요? 12월.) 「合集10223」
- 7) 癸子(巳)卜, 王: 大以射. (癸子(巳)일에 점치고 왕이 묻습니다: 大가 射를 데려올까요?) 「合集5765」

1)은 선왕 이름 앞에 구별자로 사용된 예이다. 선왕의 구별자로 사용된 ‘大’자는 갑골문의 모든 시기에 사용되었으며 그 사용빈도가 높다. 선왕들의 명칭과 세계(世系)에 관해서는 사마천이 《사기》 은본기(殷本紀)에 완전하게 기록해 두었는데 이는 갑골 복사에 보이는 상나라의 선왕을 연구하는 근거가 되며, 갑골문에서 은본기에 기록된 상의 선왕과 같은 이름이 발견됨으로써 비로소 은 시대의 유물로 확정할 수 있었다.⁸⁾ 상나라 왕은 29명이고 10개의 천간자로 이름을 삼고 있는데 사실 복사에서 천간자로서 이름을 삼은 상나라 왕은 그들이 살았을 때의 이름이 아니라 죽은 후 신

연구에 도움이 되었던 이유로 최근 들어 많은 학자들이 貞人組를 기준으로 연구하고 있다. 貞人組에는 師組, 賓組, 歷組, 出組, 何組, 無名組, 黃組의 7가지 貞人組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크게 師組와 賓組를 구분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8) 왕우신·양승남 외 지음(하영삼 역), 《갑골학 일백 년 4》, 소명출판, 2011, 24쪽.

주로서 제사를 지낼 때의 묘호(廟號)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복사에서 성탕(成湯)을 불렀던 묘호는 ‘大乙’이며 ‘大’자를 붙여 구별했으며 고조(古祖乙)이라고 부르기도 했다.⁹⁾ 1)의 ‘大丁’은 성탕(成湯)의 아들이다. ‘大’를 구별자로 사용한 선왕은 ‘大丁’이외에 ‘大乙’, ‘大甲’, ‘大庚’, ‘大戊’이 있다. 선왕 이름 앞의 구별자로 사용된 ‘大’는 사람의 정면모습을 나타낸 자형 의미와 《설문해자》의 해석에 의한 ‘위대하다’와 의미가 부합하다고 할 수 있다. ‘人’과 ‘大’는 똑같이 사람을 형상화했지만 그 사용양상은 다르게 나타난다. 선왕 이름 앞에 사용되는 구별자로 사용된 것은 선왕이 일반적인 백성과는 다른 위대한 인물이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2)와 3)의 경우 자연현상인 ‘風’과 ‘雨’자 앞에 ‘大’를 사용하여 ‘크다’라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바람과 비 또한 공간적 의미를 나타내지 않았지만 ‘大’를 사용했다. 자연현상을 나타내는 명사와 결합하여 ‘크다’라는 의미로 사용된 ‘大’는 갑골문 전 시기에 사용되었다. 자연현상과 결합한 ‘大’자는 ‘위대하다’라는 개념과 같은 속성을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문자가 탄생 전부터 인간은 거대한 자연 앞에서 맞서 싸우면서 자연의 위대함을 체득했으리라 본다. ‘위대하다’와 ‘크다’라는 의미가 태초에는 분리된 의미가 아닌 혼합된 사유였을지도 모른다. 공자 또한 ‘大’자를 ‘위대하다’라는 의미로 사용했다. 《論語》 泰伯篇에서 “大哉 堯之爲君也!(위대하시다. 요의 임금 노릇 하심이어!)”라고 한 구절에서 ‘大’자는 ‘위대하다’라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4)의 경우 부사어 역할을 하는 것으로 의미적으로는 ‘대규모로’, ‘크게’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5)의 경우 시간명사로 사용되었다. 갑골문 시기 시간에 대한 용어는 매우 발달했다. 오랜 옛날부터 사람들은 매듭을 이용하거나 나무에 글을 생기는 방법을 사용하여 하루의 시간을 기록했으며 역사가 발전하여 갑골문에서는 이미 간지(幹支)를 이용하여 시간을 나타냈다. 하루를 나타내는 시간 중에 ‘大食’은 새벽에 일을 마치고 들어와 아침 조반을 먹을 시간을 나타낸다. ‘大食’과 구별되는 ‘小食’

9) 같은 책, 31~32쪽.

은 저녁 먹는 4시경을 나타낸다.¹⁰⁾ 갑골문 초기부터 ‘大’와 ‘小’를 사용하여 시간개념을 나타낸 것은 인지 언어학에서 공간개념의 확장으로 시간개념의 어휘로 발전했다는 설명이 완벽하지 않다는 것을 나타낸다. 6)은 방국 이름으로 사용되었다. 7)의 ‘大’는 사람 이름을 나타낸다.

위의 예를 통해서 갑골문 초기에 ‘大’자는 이미 여러 가지 의미와 용법으로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은 賓出부터의 갑골문을 살펴보기로 하자.¹¹⁾ 위에 제시된 쓰임 이외에 ‘大’자가 사용된 예문을 살펴보기로 하자.

- 8) 貞: 于大方(賓)征(延)尸. (물습니다: 大(賓)에서 尸로(延)제사를 지낼까요? 「合集830」
- 9) 王宀(賓) ...于大室. (...대실(大室)에서) 「合集40362」
- 10) 辛亥酒彡 ...自上甲, 才大宗彝. (辛亥일에 酒제사와 彡제사를 지내다... 上甲에게..., 才大宗彝.) 「合集34044」
- 11) 貞: 乍(作)大邑. (물습니다: 큰 읍을 세울까요?) 「合集13513」
- 12) 畀尹乍(作)大田. (尹에게 군사훈련을 명하였다.) 「合集9472」
- 13) 大令眾人曰, 協田, 其受年. 十一月. (여러 사람에게 힘을 합쳐 농사를 지으라고 큰 명령을 내리셨다. 11월.) 「合集 제1기」
- 14) 癸丑卜, 大貞: 旬亡. 六月. (癸丑일에 점치고 大가 물습니다: 열흘 동

10) 하루의 시간대를 나타내는 갑골문을 《갑골문 自典을 겸비한 갑골문 解讀:701》에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오전을 나타내는 갑골문은 다음과 같다. 夙: 해뜨기 전의 어두운 시각, 晨: 해뜨기 전의 시각, 旦: 해가 속아 오르는 시간, 明: 날이 밝아오는 시간, 昧: 해가 떠서 밝아오는 시간(明과 비슷), 朝: 해는 이미 솟았고 달은 아직 지지 않은 아침 시간, 大采: 손으로 나무 열매를 따는 아침 활동시간, 大食: 새벽일을 마치고 돌아와 아침 조반을 먹을 시간을 나타낸다. 정오를 나타내는 갑골문은 中日이며 해가 중천에 있는 시각이며 日中이라고도 한다. 오후를 나타내는 갑골문은 다음과 같다. 昃: 해가 기울면서 그림자가 드리운 2시경, 小食: 저녁 먹는 4시경, 郭: 小食과 비슷한 4시경, 暮: 해가 진 저녁 무렵, 小采: 해가 서산에 지는 6시경, 昏: 황혼을 뜻함, 夕: 황혼 이후 다음날 동트기 전까지 어두운 시간을 나타낸다.

11) 黃天樹(1991:89)에 의하면 賓出은 武丁말이나 祖甲초의 시기에 해당한다.

안 재앙이 없을까요? 6월.) 「合集26643」

15) 壬辰卜, (賓)貞: 立三大史六月。(壬辰일에 점치고(賓)이 묻습니다: 세 명의 大史를 과연 할까요? 6월.) 「合集5506」

16) 其大出, 吉。(대거 출동할 것입니까? 길하다.) 「合集 36824」

17) 夷今夕酒大吉 茲用。(오늘 밤에 酒제사를 드릴까요? 크게 길하리라. 사용하라.) 「合集27454」

위의 예문에서 8),9),10)은 종묘에서 제사 지내는 곳에 ‘大’를 사용한 예문이다. ‘賓’은 조상을 제사 지내는 사당이다. 갑골문 시기에 제사 지내는 일은 국가의 중요한 일이며 국가에서 제사 지내는 곳인 종묘나 사당은 ‘大’를 첨가하여 사용하기도 했다. ‘室’과 ‘宗’ 또한 종묘의 제사 지내는 곳을 나타낸다. 11)의 ‘大邑’은 ‘大’가 ‘邑’을 수식하였다. ‘邑’은 사람이 사는 곳이나 사방의 건축물을 뜻하는 口 밑에 사람이 꿇어앉아 있는 모양을 나타내며 부락이나 마을을 의미한다. ‘大’를 사용하여 큰 마을이나 큰 부락의 의미를 나타낸다. 12)의 ‘田’은 갑골문에서 ‘사냥하다’라는 의미로 사용된다. ‘作大田’에 대해서는 군사훈련의 일환으로 보는 경우가 있으며, 왕이 수렵을 나갈 때 시행하는 의식으로 보는 경우가 있다. 13)은 왕이 큰 명령을 내렸다는 의미로 사용되었으며 여기서 ‘大’는 명령을 꾸며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큰 명령이라는 것은 중대한 명령 혹은 중요한 명령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14)는 정인의 이름을 나타낸다. 15)는 관직 이름을 나타낸다. 16)과 17)의 경우 부사어 역할을 하고 있다. 갑골문 시기의 ‘大’자의 부사용법은 연구가 많이 진행되었다. 楊逢彬(2001)은 갑골 북사의 형용사는 ‘幽’, ‘黃’, ‘黑’, ‘白’, ‘赤’, ‘大’, ‘小’, ‘多’, ‘少’, ‘新’, ‘舊’, ‘高’ 등 12개라고 주장하였는데 부사어 역할을 할 수 있는 형용사는 오직 ‘大’, ‘小’, ‘多’ 세 개뿐이라 했다. 劉丹青(2001)에 의하면 갑골문에 나와 있는 정도 부사는 오직 ‘大’뿐이라고 했으며 당나라 때부터 ‘非常’이 출현하고 근대중국어에 내려와서 ‘很’이 보이기 시작하고 점차 기본적인 정도부사로 자리를 잡았다고 했다. 그러나 이러한 변천 과정에서 ‘大’는 새롭게 출현한 정

도부사에 밀려 점점 그 사용빈도가 줄어들었고, 현대중국어에서는 고정형식으로 제한적인 단음절 형용사를 수식하는 기능만 남아, 자유롭게 형용사를 수식하지 못하게 되었다고 했다.

‘大’자의 갑골문 중에서 사용이 가장 많은 항목은 선왕 이름의 구별자이다. 《설문해자》의 위대하다는 해석과 부합하게 사용되었다. 그 밖의 초기 갑골문에 이미 ‘크다’, ‘대규모’, ‘시간명사’, ‘방국어름’이 사용되었다. 이 시기에 시간명사로 ‘大’자를 사용한 것은 ‘大’자가 공간적 개념에서 시간적 개념으로 변화 발전한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시간적 개념에 ‘大’를 적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시간이란 인간이 태어나 가장 먼저 통찰할 수 있는 삶의 경험에 해당된다. 인간은 눈을 뜨고 태어남과 동시에 공간개념과 시간개념을 지각할 수 있다. 추상적인 바람과 비 등도 ‘大’와 결합하여 사용되었으며 부사어 용법의 ‘大’자도 이미 사용되었다.

인지 언어학에서는 일반적으로 공간개념은 매우 기본적인 것으로 추상적인 대상을 개념화하기 위해 공간영역을 사용한다고 한다. 즉 공간개념을 통해서 많은 다른 개념들을 이해한다는 설명방식은 갑골문의 ‘大’자를 살펴보면 부합하지 않는다.

2. 갑골문 ‘小’의 자형과 의미 분석

갑골문의 ‘小’를 살펴보면 小 이다. 작은 점 또는 짧은 선 세 개로 이루어진 형상이다. 흩어져 있는 작은 점이나 모래알이나 땅을 뚫고 나오는 작은 싹들로 보는 견해도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정확하게 무엇을 본뜬 글자인지는 밝혀지지 않았다. 《설문해자》에서는 “小’는 물건이 작다는 뜻이다. ‘八’로 구성되었다. ‘丨’이 나타나자 팔로 나누었다.(小, 物之微也。從八。丨見而分之.)”라고 했다. 어떤 물건이 나누면 작아진다는 의미에서 ‘小’의 자형을 설명하고 있다.

다음은 ‘小’자가 갑골문의 이른 시기부터 사용된 예문을 살펴보기로 하자.

- 18) 戊辰卜, 乎並求小方, 我. 七月. 「合集20472」
 19) 小羊(특별히 기른 작은 양) 「合集11384」
 20) 丁未卜: 翼(翌)日昃雨, 小采雨, 東. (丁未일에 점칩니다: 내일 昃시에 비가 올까요? 小采에 비가 왔다. 東.) 「合集21013」
 21) 小甲一牛...: (...小甲에게 소 1마리로...) 「合集18407」
 22) 小臣妥...: (小臣이 ...) 「合集5578」

18)은 방국 이름을 나타낸다. 19)는 ‘小’가 ‘羊’을 꾸며주고 있다. 크기가 작음을 나타내고 있다. 20)은 시간을 나타내는 말이다. ‘小采’은 새벽에 일을 마치고 들어와 아침밥을 먹을 시간을 나타낸다. 21)은 선왕 이름의 구별자로 사용한 ‘小’이다. ‘小’를 첨가한 상나라 왕은 모두 ‘小甲’, ‘小親’, ‘小乙’이 있다. ‘大甲’과 ‘小甲’ 그리고 ‘大乙’과 ‘小乙’은 대칭을 이루지만 ‘小親’은 있지만 ‘大親’은 있지 아니한다.¹²⁾ 22)의 ‘小臣’은 관직 이름을 나타낸다. 상대 관직에 ‘大臣’은 없고 ‘小臣’이 있다. 지위가 낮은 노예 출신으로 왕궁에서 일하다 왕에게 등용된 경우가 많아서 ‘小臣’으로 명명되었지만 결코 낮은 관리가 아니었다. 소신은 직책과 업무에 따라 높고 낮음이 있었고 명칭을 보면 무슨 업무에 종사했는지를 알 수 있다, ‘小疾臣’은 질병을 치료하고 ‘小馬臣’은 말을 관장하는 소신이다.¹³⁾

다음은 賓出부터 사용된 갑골문 ‘小’를 살펴보기로 하자. 위에 제시된 쓰임 이외에 ‘小’자가 많이 사용된 예문을 살펴보기로 하자.

- 23) 不邁小雨. (작은 비를 만나지 않을까요?) 「合集 30069」
 24) 不邁小風. (작은 바람을 만나지 않을까요?) 「合集 28972」
 25) 己丑卜: 才小宗又歲自大乙. (己丑일에 점칩니다: 小宗에서 大乙에게 아제사와 제사, 歲제사를 지낼까요?) 「合集34047」

23)과 24)의 경우 자연현상인 ‘風’과 ‘雨’ 앞에 ‘小’자를 사용하여 ‘작다’

12) 왕우신·양승남 외 지음(하영삼 옮김), 앞의 책, 31~32쪽.

13) 양동숙, <갑골문 自典을 겸비한 갑골문 解讀>, 265쪽.

라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크다’라는 의미의 ‘大’와 반대의 의미를 나타내고 있다. 25)는 신주를 모아놓은 종묘의 구별자로 공간의 크기가 작음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小’자는 갑골문의 이른 시기에는 ‘방국이름’, ‘상나라 先王 이름 앞의 구별자’로 사용되었다. 그 이후에 크기가 작음을 나타내거나 시간을 나타내는 말에 사용되었고 또한 ‘관직 이름’, ‘신주를 모아놓은 종묘의 구별자’ 등으로 사용되었다. 갑골문 ‘小’자가 공간적으로 면적이나 부피가 작다는 것을 나타내는 의미는 갑골문 초기에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갑골문의 ‘大’와 ‘小’는 둘 다 상형자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으며 반의적 개념으로 갑골문 시기에 사용되었다. 하지만 현재와 같이 공간이나 척도를 나타내는 경우에 사용하는 예문은 갑골문에 많이 보이지는 않는다.

Ⅲ. ‘大’와 ‘小’의 확장 의미 분석

한자의 탄생은 인간의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탄생 초기에는 인간과 대자연의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외형을 표현했다. 인간과 자연에 존재하는 형상에 기초를 두었기 때문에 인간과 자연의 가장 뚜렷한 특징을 형상화하여 의사전달의 수단으로 삼았다.

주역에 의하면 옛날 포희씨(包羲氏)가 천하를 다스릴 때, 위로는 하늘에서 상(象)을 관찰하고 아래로는 땅에서 법(法)을 관찰하였으며, 새나 짐승으로 무늬나 토양의 특성을 살펴보았는데 가깝게는 자신의 몸에서, 멀리는 다른 사물로부터 취해 팔괘를 만들어 신명의 작용에 통하고, 만물의 상황을 유추할 수 있도록 하였다¹⁴⁾ 즉, 사물과 사람에 대한 특성을 관찰한 후에 그림 형태의 초기 글자를 만들었다고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14) 주역의 원문은 다음과 같다.

古者包羲氏之王天下也，仰則觀象於天，俯則觀法於地，觀鳥獸之文與地之宜，近取諸身，遠取諸物，於是始作八卦，以通神明之德，以類萬物之情。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의사소통과 사회활동에 필요한 개념을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표현하고 전달하려는 욕구에 따라서 사물의 형상뿐만 아니라 추상적 개념을 표현하는 한자도 탄생하였다. 원래 있던 한자도 그 쓰임이 확대되고 의미의 확장을 가져왔을 것이다.

‘大’와 ‘小’는 갑골문 시기의 상형자로 시작하여 현재까지 사용되었다. 현재의 ‘大’와 ‘小’는 구체적인 사물의 크기나 면적 등을 나타낼 때 많이 사용되고 있다. ‘大’는 일반적인 기준을 넘어섰음을 나타내며 ‘小’는 이에 미치지 못함을 나타낸다.¹⁵⁾ 그 밖의 다수의 의미항목에도 사용하고 있으며 통사적으로도 여러 사용상의 쓰임을 나타낸다. ‘大’와 ‘小’는 의미적으로 반의적 관계에 있으며 그 사용상 쓰임이 대칭성과 비대칭성을 보이고 있다.

‘大’와 ‘小’가 크기나 면적을 나타낼 때 사용되는 대칭성과 비대칭성을 살펴보자. 일반적인 경우에는 대부분 대칭성을 보이고 있다. 예를 들면 ‘大型 ↔ 小型’, ‘大巴 ↔ 小巴’, ‘大腸 ↔ 小腸’, ‘大潮 ↔ 小潮’, ‘大蔥 ↔ 小蔥’, ‘大麥 ↔ 小麥’, ‘大白菜 ↔ 小白菜’ 등이다. 하지만 비대칭성을 보이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면 ‘大’자를 사용하여 ‘大街’, ‘大陸’, ‘大廈’, ‘大廚’, ‘大牙’, ‘大自然’ 등은 사용할 수 있으나 ‘小街’, ‘小陸’, ‘小廈’, ‘小廚’, ‘小牙’, ‘小自然’ 등은 사용할 수 없다.

다음은 ‘大’와 ‘小’가 사물의 크기나 면적 등을 나타내는 경우를 제외하고 살펴보기로 하자.

‘大’와 ‘小’는 갑골문에서 이미 하루의 시간대를 나타낼 때 사용되었다. 갑골문 시기부터 시간을 나타내는 어휘로 사용된 ‘大’와 ‘小’는 계절, 절기, 명절, 시간, 날짜 앞에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절기에 사용하는 ‘大暑’, ‘大雪’, ‘大寒’은 ‘小暑’, ‘小雪’, ‘小寒’과 대칭을 이루어 사용되고 있다. 24 절기 가운데 여덟 번째 절기에 해당하는 ‘小滿’은 대칭을 이루지 않고 사

15) 《現代漢語詞典(第7版)》의 ‘大’와 ‘小’자의 첫 번째 의미항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大：在體積、面積等方面超過一般或超過所比較的對象(跟‘小’相對)

小：在體積、面積等方面不及一般的或不及比較的對象(跟‘大’相對)

용된다. 계절을 나타내는 경우 ‘春’과 ‘秋’에 ‘大’와 ‘小’를 덧붙여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 ‘大春’은 봄을 나타내거나 봄에 파종하는 작물을 나타낸다. 하지만 ‘小春’은 음력 10월을 나타내거나 음력 10월경에 파종하는 늦가을 작물을 일컫는다. ‘大秋’는 가을을 나타내거나 추수의 계절을 뜻하며 ‘小秋’는 초가을을 나타낸다.

‘淸早’, ‘早上’은 아침을 나타낸다. ‘大’를 첨가하여 강조를 나타내며 일반적으로 구어에서 많이 사용되고 서면어에서는 사용하지 않는다. ‘淸早’, ‘小早上’은 사용하지 않는다.

‘大後年’, ‘大後天’, ‘大前年’, ‘大前天’ 등은 날짜를 나타내고 있다. 하지만 ‘小’는 시간과 날짜를 나타내는 데 사용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大後年’, ‘大後天’, ‘大前年’, ‘大前天’ 등과 대응되는 표현은 없는 것이다.

‘大’의 의미 중에 ‘대강’, ‘대충’의 의미를 나타내는 경우가 있다. 여기에서 ‘대강’, ‘대충’의 의미는 ‘큰 틀 안에서’라는 의미를 나타낸다. 현재 ‘大概’, ‘大致’, ‘大約’, ‘大體’, ‘大旨’, ‘大意’, ‘大略’, ‘大抵’, ‘大綱’ 등으로 사용된다. 하지만 ‘小’의 경우는 ‘小概’, ‘小致’, ‘小約’, ‘小體’, ‘小旨’, ‘小略’이라고는 말할 수 없다. 이 또한 비대칭성을 보이고 있다.

‘大’의 의미 중 어떤 범위, 정도, 힘, 또는 태도나 영향을 미치는 정도가 지나칠 때도 사용될 수 있다. 예를 들면 ‘大慈大悲’, ‘大膽’, ‘大方’, ‘大道’, ‘大度’, ‘大團圓’ 등이 있다. ‘大膽’의 경우 ‘膽’은 원래 신체의 장기를 나타내는 데 배짱이나 담량을 비유하여 나타내고 있으며 ‘大’와 결합하여 겁이 없고 용감하다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하지만 ‘小’는 이런 경우 대칭되어 사용되지 않는다.

‘大’와 ‘小’의 쓰임 중에서 ‘大’는 ‘小’보다 긍정적 의미에 많이 사용되고 있다. 예를 들면 ‘大’가 직업이나 사회 신분을 나타내는 명사 ‘科學家’, ‘明星’, ‘教授’ 등과 결합하여 ‘大科學家’, ‘大明星’, ‘大教授’로 사용되고 있다. 이는 긍정적 의미나 가치를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大’자의 《설문해자》의 해석인 ‘위대하다’라는 의미의 연속선상에서 쓰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와 반대로 ‘小百姓’, ‘小職員’ 등과 결합하여 사용하는 ‘小’는 보잘 것 없

고 낮은 사회적 지위에 처해 있는 사람에 대한 가치 판단을 나타낼 때 사용한다.

‘일반적으로 ‘小’의 의미는 전이되어 사용되는 경우 부정적 의미를 생성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생각이 깊지 못하고 능력이 없거나 인색한 경우를 나타내는 ‘小氣’, ‘小人物’, ‘小心眼兒’ 등이 있다. 또는 배후에서 사람들을 타인을 헐뜯거나 궁지에 몰아내거나 경멸할 때 사용되는 경우에 ‘小鞋兒’, ‘小動作’, ‘小廣播’, ‘小看’, ‘小覷’ 등을 사용한다. 약삭빠른 행동을 할 때는 ‘小聰明’이라고 하며 중국어의 도둑도 또한 ‘小偷’로 나타내고 하찮은 인간을 나타낼 때 ‘小醜(兒)’를 사용한다.

‘大’와 ‘小’는 동사와 결합할 때도 많이 사용된다. ‘大’의 경우 대부분의 동사와 결합이 가능하지만 ‘小’의 경우 제약이 발생한다. 특히 신체의 동작 행위를 통하여 행해지는 동사의 경우 대부분 ‘大’와 결합하지만 ‘小’의 경우 제약이 발생한다. 우선 손과 연관된 경우 예를 들면 ‘大拔’, ‘大搬’, ‘大穿’, ‘大打’, ‘大幹’, ‘大搞’은 가능하지만, ‘小’은 이런 동사들과 대부분 결합하지 않는다. 이 밖에도 다리와 연관된 신체 부위 동사 ‘蹣’, ‘攏’, ‘挪’, ‘跑’, ‘跳’, ‘踢’, ‘騎’는 ‘大’와 결합할 수 있지만 ‘小’와는 결합할 수 없다. 어깨나 몸 전체를 사용하는 동사 예를 들면 ‘背’, ‘挑’, ‘扛’, ‘爬’, ‘攀’ 등도 ‘大’와 결합할 수 있지만 ‘小’와는 결합할 수 없다.

신체 부위 중 입과 관련된 경우 대부분 ‘大’와 결합하여 사용하지만 ‘小’와는 결합하는 경우가 많지 않다. 예를 들면 ‘哭’, ‘笑’, ‘叫’, ‘鬧’, ‘吵’, ‘鳴’, ‘罵’, ‘喊’, ‘呀’, ‘嚷’, ‘喝’, ‘呼’, ‘說’, ‘話’, ‘吞’, ‘嚼’, ‘咬’, ‘吃’, ‘喝’, ‘咽’ 등의 동사는 ‘大’와 결합하여 사용하지만 ‘小’와는 결합할 수 없다. 예를 들면 ‘大說大笑’, ‘大喊大叫’, ‘大喝一聲’, ‘大吵大鬧’, ‘大吼大叫’, ‘大叫大嚷’, ‘大哭大鬧’, ‘大鳴大放’, ‘說大話’, ‘大罵’로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런 경우 ‘小’와는 결합하여 사용할 수 없다.

현재 ‘大’와 ‘小’는 대칭성과 비대칭성을 보이며 어휘의 확장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갑골문 시기에 형성된 의미에서 확장되어 사용하고 있다.

‘大’는 작을 이루는 관용표현에도 사용할 수 있다. 《現代漢語詞典(第7

版》에 나온 예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격식	예문
‘大…大…’격식	‘大手大腳’, ‘大魚大肉’, ‘大吵大鬧’, ‘大吃大喝’, ‘大搖大擺’, ‘大紅大綠’
‘大…特…’격식	‘大書特書’, ‘大吃特吃’, ‘大改特改’

《現代漢語詞典(第7版:240)》에서는 ‘大…大…’가 각각 명사 동사 혹은 형용사 앞에 놓일 수 있으며 규모가 크고 정도가 심함을 나타낸다고 했다. 또한 《現代漢語詞典(第7版:245)》에서는 ‘大…特…’의 격식에 대하여 각각 동일한 동사 앞에 사용되며, 규모가 크고 정도가 심함을 표시한다고 하였다. ‘小…小…’의 경우 관용표현으로 사용되지 않고 있다. 대화체에서 사용하는 경우는 있으나 《現代漢語詞典(第7版)》에서는 이 격식이 수록되지 않았다.¹⁶⁾ 관용표현의 격식에 있어서도 ‘大’와 ‘小’는 비대칭성을 보이고 있다.

IV. 결론

현재 공간 형용사 혹은 공간 척도 형용사로 분류하고 있는 ‘大’와 ‘小’는 대부분 언어에서 존재하는 기본 어휘이다. 하지만 ‘大’와 ‘小’의 자형 의미는 공간에서 출발하지 않았다. 大’자의 갑골문 𠂇는 사람의 정면을 형상화한 것이다. 이어서 ‘小’의 갑골문 小는 작은 점 세 개 혹은 자그마한 먼지 혹은 씨앗, 모래 모양을 형상화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갑골문은 문자의 조형이나 구조로 볼 때 성숙한 형태의 문자라고 할 수

16) ‘小…小…’의 격식은 사전에는 수록되어 있지 않지만 일상회화에서는 사용이 가능하다. 예를 들면 ‘小恩小惠’, ‘小手小腳’, ‘小忠小信’ 등이 있다.

있다. ‘大’와 ‘小’는 갑골문 시기에 이미 여러 가지 의미와 용법으로 사용되었다. 갑골문부터 사용된 ‘大’와 ‘小’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의미와 쓰임의 확장을 이루며 여러 방면에서 사용되었다.

‘大’와 ‘小’는 반의적 개념으로 사용되며 어휘를 형성할 때 대칭성과 비대칭성을 보이고 있다. ‘大’는 ‘小’에 비해 다른 성분과의 결합이 더 자유롭고 파생 능력과 의미 확장 능력도 더욱 강하여 사용빈도가 높으며 더 많은 표현에 사용될 수 있었다. 특히 긍정적인 감정 색채를 나타낼 때 사용하는 경우가 더 많이 있다. 하지만 ‘小’는 부정적 의미 색채에 사용하는 경우가 더 많이 있었다.

현재 천편일률적으로 ‘大’와 ‘小’를 공간 형용사 개념에 한정시켜 연구하고, 공간의 의미를 나타내던 단어가 확장되어 시간이나 추상적 의미를 나타낸다는 것은 ‘大’와 ‘小’의 갑골문을 통해서 살펴본 결과 타당성이 결여 되었다고 할 수 있다.

현재의 의미변화는 갑골문에서부터 확장된 결과이다. 언어의 변화 발전은 고대부터 지금까지 점진적으로 변화를 가져왔으며 의미나 통사적 발전도 갑골문에서 확장된 것으로 볼 수 있다.

< 참고문헌 >

- 박현주, 《갑골문에 나타난 글자 운용에 대한 문제》, 연세대학교 박사 논문, 2018.
- 양동숙, 《갑골문 자전을 겸한-갑골문해독(甲骨文解讀)》, 서예문화사, 2005.
- 왕우신, 양승남 외 지음(하영삼 역), 《갑골학 일백 년 1-5》, 소명출판, 2011.
- 이민우, 〈차원 형용사 ‘大’의 의미와 기능에 대한 인지 의미론적 고찰〉, 《중국언어연구》, 12집, 2000.
- 탕누어, 《한자의 탄생》, 김영사, 2015.
- 張佳穎, 〈공간척도사 ‘大/小’의인지적 의미분석〉, 《중국언어연구》, 12집,

2014.

陳青松,〈關聯定位與“大/小”的突顯功能〉,《寧夏大學學報》第3期,2004.

黃天樹,《殷墟王舊辭的分類與斷代》,天津出版社,1991.

李軍、任永軍,〈空間維度詞“大、小”的隱喻義認知分析〉,《中國海洋大學學報》第4期,2002.

劉丹青,〈語法化中的更新、強化與疊加〉,《語言研究》,第2期,2001.

陸儉明,〈說量度形容詞〉,《語言教學與研究》第3期,1989.

沈賢淑,〈漢朝空間維度詞的對比〉,延邊大學碩士學位論文,2001.

任永軍,〈現代漢語空間維度詞語義分析〉,延邊大學碩士學位論文,2000.

聞政華,〈形容詞“大”的認知語義分析〉,《濮陽職業技術學院學報》第1期,2008.

楊逢彬,〈關於殷墟甲骨刻辭的形容詞〉,《古漢語研究》第1期,2001.

中國社會科學院語言研究所詞典編輯室,《現代漢語詞典(第7版)》,商務印書館,2016.

百度網, <http://www.baidu.com>

北京大學漢語語言研究中心, <http://www.ccl.pku.edu.cn>

國學大師, <http://www.guoxuedashi.com>

< Abstract >

‘大’ and ‘小’ are now classified as spatial adjectives or spatial scale adjectives. However, The shape of ‘大’ and ‘小’ did not indicate the meaning of space. The word ‘大’ in Oracle Bone Inscriptions is 𠂇, It is shaped like a person's frontal shape. The word ‘小’ in Oracle Bone Inscriptions is 𠂇, It is a shape of three small dots or tiny dust or seeds or sand. During the Gajgol Gate period, ‘大’ and ‘小’ were

already used in various meanings and uses.

The meaning has been expanded according to the flow of ‘大’ and ‘小’ time, and ‘大’ and ‘小’ are used in various ways, showing symmetry and asymmetry in use as a opposite meanings relationship. Combination with other ingredients of ‘大’ was more free and derivative ability and ability to extend meaning were stronger and could be used for more expression. ‘小’ was more often used in colors of negative meaning.

Key Words : 비대칭성(asymmetric), 공간 감각어(Spatial terms of dimensions), 확장의미(extended meaning), 한자의 자형 의미(Glyph meaning), 갑골문(oracle bone)

